

제주 인구-가구 증가 추세 '역전'

올 들어 월평균 인구 364명·595세대 늘어
2016년 1434명·837세대 증가 추세와 대조
인구 외부유입 급감 속 '1인 가구' 가속화

제주도의 인구유입이 급감하면서 올해부터 월평균 늘어나는 인구가 세대 증가보다 적은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 현재 제주 주민등록인구는 66만8648명으로 3월말에 비해 52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수는 28만9484로 3월에 비해 601세

대 늘어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48만7143명이었으며, 서귀포시는 18만1505명이었다. 3월에 비해 제주시는 387명, 서귀포시는 141명 증가했다. 세대수는 제주시 20만6369, 서귀포시 8만3115세대였다.
이에 따라 올들어 4개월간 제주지역 인구는 1457명 늘면서 월평균

364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가 월평균 300명 정도, 서귀포시는 65명 증가했다.
반면 세대수는 인구수 증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세대수는 한달 평균 595세대가 증가하며 인구수 증가폭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시인 경우 300명정도 늘어나는 기간 세대수는 437, 서귀포시는 65명 밖에 늘지 않았지만 세대수는 158로 갑절 이상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한해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의 지난 한해 동안 늘어난 인구는 1만108명으로

월평균 842명 정도였다. 이 기간 8901세대가 증가하며 월평균 742세대로 인구수 증가가 많았다. 제주시는 월 604명씩 늘어나는 동안 세대수는 514세대, 서귀포시는 239명 증가에 228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017년에도 월평균 1290명씩 증가하는 동안 935세대씩 늘었으며, 서귀포시는 한달 평균 621명씩 증가하며 제주시(670명)에 근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대수는 인구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428세대였다.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던 2016년에도 월평균 1434명씩 증가하는 기간 늘어난 세대수는 월평균 837이었다. 2015년 역시 2016년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유입인구 감소 등 결국 인구증가 추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태에 식구가 없는 1인 또는 2인 세대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인가구 통계를 보더라도 2015년 5만8446가구로 전체의 23.7%를 차지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6만22841가구로 24.45%, 2017년 6만8738가구로 25.74%로 높아졌다. 따라서 제주지역도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 독거노인 가구는 물론 싱글족 증가 등 1인 가구 추세가 점차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친환경농가에 유기질비료 지원

도, 8-22일 사이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농자재(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제도를 개선해 그동안 용자 추천에 따른 이차지역 지원에 한정됐던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으로 도내 친환경농업인(단체)에 유기질비료 23만7000포를 공급(농어촌진흥기금 11억8500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고(특초 제외) 신

청일 기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로, 지원기준은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 포당 5000원 한도(1만㎡ 기준 130포, 6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업인(단체)은 8일부터 22일까지(15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및 사업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도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 중 유기공시된 유기질비료(8개 제품)이며,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가가 희망하는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고대로그기자



불기 265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12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가운데 불자들이 아귀 부처를 묵묵히 지키는 관음의식을 하고 있다.

“온 누리가 빛이요, 못 생명이 삶의 주인”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도내 사찰 곳곳 봉축 법요식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2일 도내 사찰 곳곳에서 '마음에(愛)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이란 주제 아래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이날 봉축 법요식을 찾은 불자들은 육법공양, 헌화하고 헌다, 관불의식 등에 참여하며 부처의 자비가 온 누

리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밝혀진 등불이 제주의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한 마음으로 바랐다.
앞서 제주불교연합전통문화축제위원회 대회장인 허운 스님(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은 부처님오신날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께서는 온 누리가 빛이요, 못 생명이 삶의 주인임을 밝혀주셨다”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단한 삶을 살

아가면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꽃피워나갈 때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했다.
제주불교연합전통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인 석용 스님(천태종 제주지부 문경사 주지)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와 내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서로서로 받아들이는 관음의 정신으로 나온다”면서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삶을 강조해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의 큰 지침으로 삼아 통합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500명 육성

제주도, '2019년 영농인력 지원 계획' 수립·시행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육성자금·농지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수 감소와 농가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19년 영농 인력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 수급을 통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와 협력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도내·외 유휴인력 및 자원봉사단 등 국민수확단을 모집해 일손을 지원한다. 국민수확단 지원 계획은 연 인원 2만5000명이다.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는 농촌일자리 알선·중개 수요(실태) 조사 및 중개, 전담상담사 운영과 농작업자 현장교육, 상해(손해) 보험 가입 등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실질

적인 농가 지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산재보험료 및 국제선 항공료도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마을 고령화에 대응키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등 농업인력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창업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선발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80만~10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육성자금(용자)·농지·기술 교육 등 농림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건설한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또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

상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지원한다.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업경영육성자금 융자지원(최대 3억원,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과 역량강화 교육·컨설팅을 통해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더불어 군·경 인력, 민간 봉사단체, 1사1촌 운동 등 도민사회 전반에 농촌일손돕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일손돕기 지원창구'를 개설·운영한다.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농업·농촌의 각종 재해발생 상황에서도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되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업과 농촌에 영농인력 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촌 사회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그기자 bigroad@ihalla.com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세요

유료 판매부수 제주도내 1위, 신뢰도 1위 신문
환경 중심, 사람 중심, 칭찬하는 신문
뉴미디어 기업으로 제도약하고 있는 한라일보가 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제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꿈,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 수습기자 0명
▶ 경력기자 0명
▶ 사진기자(신입/경력) 0명
※ 경력직은 동일직종 2년 이상
▶ 경영기획 인사·총무(신입) 0명
▶ 광고영업(신입) 0명

제출서류 : 1.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인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자격·면허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stkim@hallaibo.co.kr (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19년 5월 21일
문 의 : 한라일보 경영기획실 064)750-2531

※ 재학생 지원 불가(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재학생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드든한 국민생활 파트너 with LH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더 안아주고 더 알아주는 드든한 기업, LH

LH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합니다

안심 생활 행복살터 구축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로 주거생활권 보강
· 생활지원 서비스, 소셜마켓, 스마트홈 서비스 등 주거복지강화

약자를 배려하는 시장정의 실현
· 지속적 알선 제공 및 직장임금 보장, 상호존중 조직문화 등 상생의 조직문화
· 긴급 주거복지 우선 지원 및 주거 취약자 지원 강화 등 사회적 배려

더불어 성장하는 균형성장발전
· 동명 제조소 관광허브 재생, 낙후지역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경제 활성화
· 혁신도시 활성화, 혁신형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발전 조성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문화 실현
· 나남, 직은도서관, 주거복지 캐비닛 등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 입주예정자, 도시재생 주민 커뮤니티 등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운영

LH 한국토지주택공사